

# 한국교회의 설교 도용에 대한 한 연구

김금용(호남신학대 교수)<sup>1)</sup>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교회 설교 도용의 현실

1. 도용의 유형
2. 도용 방법
3. 도용의 원인

## III. 설교 도용의 문제점

1. 정직성에 위배됨
2. 설교자의 설교 작성 능력을 퇴보시킴
3. 도용된 설교는 이미 설교가 아님

## IV. 도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1. 설교자의 설교능력 증진
2. 신학교의 설교교육 강화
3. 설교자의 성실한 설교준비
4. 설교자들의 재교육

## V. 나가는 말

---

1) 김금용 교수는 현재 영국 아버딘대학교(University of Aberdeen) 명예연구교수(Honorary Research Fellow)이기도 하다.

---

• **ABSTRACT** •

---

Recently Korean society has been faced with the problem of several scholars' plagiarism. This problem is not limited to certain scholars. Plagiarism, that is, the practice of using someone else's idea or work and pretending that he thought of it, has extensively appeared in the world of preachers as well. However it has not been discussed sufficiently in the world of the Korean preachers although there were some simple mentions.

Therefore three important subjects that should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the plagiarism of preaching are discussed throughout this study. The first i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preaching-plagiarism of the Korean church. The second is that its vulnerable points are discussed. The third is to suggest pertinent ideas that can help preachers overcome the plagiarism of preaching.

**Keywords:** plagiarism, reality, preaching, homiletics, honesty, re-education

---

## I.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을 비롯하여, 일련의 전 현직 교수들의 논문 표절 사건으로 내홍(內訌)을 겪어왔다. 연구 윤리가 바르게 정립된 나라의 학계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국 학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설교자로서 우리는 어떠한가?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은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처럼, 설교에서 표절이나 도용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많은 설교자들이 도용<sup>1)</sup>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설교자들이 도용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설교자들이 도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설교학계에는 설교의 도용과 관련된 간단한 언급은 있었지만, 이와 관계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 설교학계는 설교 도용과 관련된 연구를 피할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작금(昨今)의 사회동향이 도용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관심을 표명(表明)하고 있으며, 이것은 머지않아 설교 도용을 향해서도 정조준(正照準) 될 것처럼 보이기

---

1) 이 글에서 도용이나 표절은 같은 말이다. 「민중국어사전」에 따르면, 도용은 “남의 것을 훔쳐 쓰는 것”이고, 표절은 “문장 등의 글귀를 훔쳐서 자기 것인 것처럼 발표함”을 말한다. 둘 다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을 의미하나, 표절은 글귀에 한정된 말이고, 도용은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도용이란 말을 일괄적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도용은 설교의 도용을 의미하기에, 표절이란 말로도 바꾸어 쓸 수 있으나, 정 장복 교수가 이미 이 문제를 언급하며, 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교 도용과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을 언급해야 하는가? 우리는 설교 도용과 관련하여 도용의 실태와 원인 등등 많은 문제들을 깊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도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상세하게 언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설교 도용과 관련된 세부항목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설교 도용 연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을 제시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가능한 답을 시도해본다. 먼저, 한국교회의 설교 도용의 현실을 고찰해본다. 왜냐하면 도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도용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왜냐하면 도용의 문제점을 알아야 그것에 맞는 대안을 발견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자들이 설교 도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본다.

## II. 한국교회 설교 도용의 현실

그럼 먼저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 도용의 현실을 살펴보자. 한국교회의 설교 도용 현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설교의 도형 유형이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도용할 때 사용하는 도용 형태를 분류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 도용 방법이다. 설교자들이 도용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용의 원인이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도용의 길로 접어드는 원인을 분석해보는 것이다.

## 1. 도용의 유형

그럼 먼저 도용의 유형을 살펴보자. 설교자들의 도용 유형은 다음과 같이 대략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 1) 설교전문의 도용

첫 번째는 설교 전문을 도용하는 경우이다. 이 때 설교자들은 설교 시 한 편의 설교 전체를 남의 설교 그대로 사용한다. 이 때 대부분의 설교자는 타인의 설교 내용 중 극히 일부분, 즉 자신의 교회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sup>2)</sup>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도용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어떤 교회의 부목사로부터 직접 들은 그 교회의 담임목사의 경우이다. 그 부목사에 따르면,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설교 전문을 공급하는 한 설교문 공급업체로부터 매주 설교를 제공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목사는 업체로부터 받은 그 설교문을 전문(全文) 그대로 강대상에 들고 올라가서 읽는다고 한다. 또 정 장복 교수에 따르면, 몇 해 전 포항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목회자가 유명 목사의 설교를 예배시간에 그대로 표절하여 물의를 빚었다고 한다.<sup>3)</sup> 이 목사는 유명 목사의 설교를 거의 전문 그대로 여러 차례 도용해온 것처럼 보인다.

설교자들의 이러한 설교 전문의 도용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서도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보통 어느 정도 설교학 교육을 이수한 성인들을 위한 설교자들과 달리, 대부분의 청소년설교자들은 설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아직은 설교사역을 감당할만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여전히 상당히 많은 한

2) 예를 들면, 도용된 설교문에 언급된 교회이름을 설교자 자신의 교회이름으로 바꾼다.

3) 뉴스앤조이, 2000년 10월 07일자.

국교회에서 설교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평신도들에 의하여 청소년설교가 시행되고 있다<sup>4)</sup>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설교 전문의 도용 현실과 그 가능성을 잘 예시(例示)해 준다.

## 2) 부분적인 도용

두 번째로 나타나는 도용의 형태는 다른 사람의 설교문을 부분적으로 도용하는 경우이다. 아마도 이 경우는 앞에서 언급된 설교문 전체를 도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설교 전문을 도용하는 경우와 달리 쉽게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회에 만연된 각종 짜깁기 행태(行態) 때문에 쉽게 설교자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설교를 도용하는 설교자들은 타인의 설교를 어떤 식으로 도용할까? 첫 번째 방법은 여러 사람들의 설교내용 중 마음에 드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하나의 설교로 짜깁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용을 단지 피상(皮相)적으로만 바라본 경우이나, 우리 한국사회에 만연된 짜깁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설교자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방법은 설교의 주된 메시지를 성경 본문 연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다른 사람의 설교나 자료만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나름대로 성실한 설교 준비를 통하여 외견상으로는 도용된 설교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본질적으로 그녀 또는 그의 설교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God's Word written)인 성경말씀<sup>5)</sup>에

4) 예를 들면, 최정성,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성경인물설교』(서울: 백함출판사, 1991); 나이진우, 『청소년설교 이렇게 하십시오』(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9)를 보면 알 수 있다. 최정성의 설교집은 설교학 교육을 받지 못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설교집이며, 나이진우의 설교집 속에는 목회자가 아닌 한 집사에 의해서 행해진 설교가 실려 있다.

5) John Stott, *I Believe in Preaching* (London: Hodder & Stoughton, 1982), p.96.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성령 하나님(the Holy Spirit)을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기에 도용된 설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토마스 롱(Thomas G. Long)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교자가 증인이며<sup>6)</sup>, 그래서 설교가 증언이라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롱의 말대로, 뭔가를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그것에 관해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앞에서 말한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단지 다른 사람의 설교로부터 아이디어만을 제공 받아 그것에 나름대로의 내용을 덧붙여 말하는 설교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도용된 설교가 아닐까?

그렇다면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오늘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고 있을까?

## 2. 도용 방법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 도용 방법을 분류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 1) 설교집을 통한 도용

설교자들이 설교를 도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설교집으로부터 설교 내용을 도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정장복 교수는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집을 통한 도용 사실을 ‘한국 강단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적신호들’중 하나로 그의 주저(主著) 한국교

6)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서병채 역, 「설교자는 증인이다」(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61면.

7) 같은 책, 63면.

회의 설교학개론에서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의 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설교집이 당연한 경쟁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점이다.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자랑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설교를 기록하여 교인들에게 다시 읽도록 하는 목적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가지의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를 본다. 하나는 동역자된 설교자들이 그 설교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강단에 들고 나서는 부끄러운 죄를 유발하는 것이고...<sup>8)</sup>

여기서 정장복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뚜렷한 목적이 없는 설교집들이 대량으로 쏟아져나오고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설교자들에게 설교도용의 편리한 방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지적한다. 정장복 교수의 말대로,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목적 없는 설교집들이 넘쳐나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국에 있는 서점이나 기독교서점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중심예배를 지향하며, 과중한 설교 횟수<sup>9)</sup>에 시달리는 많은 한국개신교 설교자들에게 손쉬운 도용의 도구가 되고 있다.

## 2) 설교공급업체를 통한 도용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두 번째 설교 도용 방법은 인터넷 설교 사이트 등 설교공급업체들<sup>10)</sup>로부터 설교를 공급받아 도용하

8)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1), 35면.

9) 우리가 잘 아는대로, 한국개신교회들은 주일대예배, 주일오후 또는 저녁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매일의 새벽예배 등 보통 1주일에 11회 이상의 집회를 가지며, 이것을 보통 설교중심예배로 드린다. 이외에도 목회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예배에 참여해야하며, 거기서 또 설교해야 한다. 그런데 목회자 1인이 목회하며, 그 모든 예배의 설교를 감당해야 하는 교회라면, 1인의 설교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설교 횟수가 아닌가?

10) 구글([www.google.co.kr](http://www.google.co.kr))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설교’ 항목을 찾으면

는 것이다. 설교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 설교 사이트나 기타 설교공급업체들로부터 설교를 매주 정기적으로 또는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 이들 설교공급업체들은 회원들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고 설교문을 공급한다.<sup>11)</sup>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사이트를 통하여 설교 도용 유혹에 노출되는 것일까? 그 예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자가 한 인터넷 설교 사이트의 방문 횟수를 조사해보았다. 조사해본 결과 2007년 9월 26일 오전 8시 현재-오늘의 방문자 962명, 어제 방문자 3743명, 전체 방문자 11795997명으로 참으로 놀라운 숫자의 설교자들이 한 설교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우리는 이들 설교공급업체들로부터 설교문을 공급받은 설교자들이 모두 설교문 전체를 도용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중 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한 것은 아닐까?

### 3. 도용의 원인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이 설교 도용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설교 도용 유혹에 노출되는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볼 수 있다.

---

우리는 ‘설교뱅크’ 등 다양한 설교 공급업체들을 만날 수 있다.

11) 예를 들면, 인터넷 설교전문사이트 ‘설교은행’(www.sermonbank.net)은 2007년 9월 30일 현재 정회원(목사)에게 50,000원의 연회비를 받고 설교문을 공급하고, 준회원(전도사, 신학생)에게는 30,000원의 연회비를 받고 설교문을 공급한다. 물론 연회비 없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설교문은 접근할 수 없고, 오직 예화자료만을 볼 수 있다.

## 1) 설교 작성 능력의 부재

첫 번째 이유는 설교자들이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즉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지 않고는 한 편의 설교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설교를 작성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설교 작성능력을 터득하기 전에 신학교의 문을 나서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는 신학교 교육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신학생들이 설교자로 강단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학교를 떠나거나, 심지어 신학에 입문하자마자 설교의 현장으로 나서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혀 설교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들 중 어떤 이는 타고난 능력으로 전혀 배우지 않고도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충분한 설교학 교육을 받은 후에야 처음의 초라했던 모습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충분한 설교학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신학교에 입문한 즉시 여러 가지 이유로 설교의 현장으로 나선 설교자들은 과연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의 설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이처럼 설교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정장복 교수가 지적한 대로 한국의 신학 교육이 이론신학에만 치우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sup>12)</sup> 특별히 설교학 과목들은 오랫동안 설교학 전공 교수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소위 큰 교회 목회자들에 의하여 대체되었고, 이러한 설교학 교육의 부실은 정장복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한대로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결과를 양산하였다.

설교학 교육 부재의 50년대 이후에 설교자로 등장한 대부분이 선배들의 설

12) 정장복, 같은 책, 27-28면.

교를 모방하거나 자신만의 특유한 설교와 그 전달의 방법을 개발하여 지속 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적절한 교육의 결핍으로 인해 설교자가 자신의 경험 담과 수집된 예화로 흥미의 줄기를 이어가면서 설교 시간을 메워가는 참으로 위험한 설교 사역을 수행하게 됨을 쉽게 발견한다.<sup>13)</sup>

위에서 정장복 교수가 잘 지적한대로 설교학 교육 부재의 이론신학 위주의 신학교육은 설교의 모방자, 자신만의 특유한 설교자, 경험담이나 예화만을 위주로 설교하는 설교자를 양산하였다. 여기서 자신만의 특유한 설교자는 설교학을 배우지 못했기에 설교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설교방법을 따르지는 않으나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로 특유한 설교방법을 개발한 자로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도 있으나, 설교의 모방자나 예화 위주의 설교자는 설교학 교육 부실의 부정적인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2) 과도한 설교 횟수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설교 도용의 위험 속에 노출 된 두 번째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설교 책임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1주일에 보통 11회의 공적인 집회를 가지며, 그 중 대부분을 설교중심 예배로 드린다. 이때 목회자 1인이 목회하는 교회라면 그 모든 설교를 한 목회자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설교학에서는 보통 설교 1분을 위해서는 1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지기 때문이다.<sup>14)</sup>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1인의 설교자가 1주일동안

13) 같은책, 28면.

14) 참고, J. Daniel Baumann,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정장복 역, 현대 설교학 입문<sub>1</sub>(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161면과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11편의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갈뱅(John Calvin)처럼 교회의 역사 속에 위대한 족적을 남길만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매일 설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갈뱅의 설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가 1549년 10월 이후에야 매일 설교했고, 또 매주 매일 설교한 것이 아니라 격주로 매일 설교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그렇다면 지극히 평범한 설교자가 매주 11회의 설교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과도한 설교 횟수인가? 이러한 과도한 설교 횟수가 한국의 설교자들을 도용의 세계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

### 3) 게으름

그렇다면 설교자를 도용의 세계로 몰고 가는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아마도 태만(怠慢) 곧 설교자의 게으름이 설교자를 도용의 세계로 몰고 가는 또 다른 한 이유인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누구나 때때로 게으름에 직면한다.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특별히 설교에 있어서 게으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 이외에도 심방 등 다른 일들로 인하여 바쁘고, 바쁜 설교자들이 감당하기에 설교는 상당히 길고 성실한 준비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일리온 존스(Ilion T. Jones)에 따르면, 설교자는 매주일 강단에 오르기 전에 규칙적으로 다음의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 즉, 설교에 대한 마음의 준비 단계, 마음내키는 대로 읽고 깊이 생각하는 단계, 잠정적인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 완전하고 세부적인 설교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 완전한 설교를 한자리에서 적는 단계, 마지막으로 설교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단계<sup>16)</sup> 등이다. 이처럼 설교준비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설

개론」(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1), 253면.

15) T.H.L. Parker, *Calvin's Preaching*, 김남준 역, 『갈빈과 설교』(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3), 92면.

교자들처럼 일주일에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감당해야 할 설교자들이 이미 심방 등 다른 목회활동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설교학에서 말하는 성실한 설교준비는 너무나 이상적인 목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피로에 지쳐 게을러지기 쉬운 설교자에게 다른 사람의 설교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크게 열린 대문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게으름의 유혹 속에 노출된 설교자들에게 생스터(W. Ddwin Sangster)는 분명히 말한다. “영원한 세상에서 설교자가 게으름의 결과로 직면할 후회의 쓴맛은 본질적으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sup>17)</sup>

#### 4)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람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을 도용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쉽게 도용할 수 있는 설교 자료가 범람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우리는 설교 도용 방법으로 사용되는 설교집이나 인터넷사이트 등 설교공급업체의 예를 보았다. 바쁘고 피곤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설교의 중압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한 설교준비를 수행하기에는 오늘의 한국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설교집들과 설교공급업체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6) Ilion T. Jones,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aching*, 정장복 역, 『설교의 원리와 실제』(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84-199면.

17) W. Edwin Sangster, *The Craft of Sermon Construction* (London: The Epworth Press, 1949), p.185.

### III. 설교 도용의 문제점

그렇다면 설교자들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는 일은 무엇이 문제일까? 왜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해서는 안 되는가?

물론 설교를 도용하거나 설교 도용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도용했고, 지금도 도용하고 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교의 역사 속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도용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베일레이(Raymond Bailey)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설교의 도용 행위가 너무나도 만연되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은 왕이 된 후 모든 설교자들은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설교를 해야 한다는 법령을 공포하였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억지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성경은 “좁은문으로 들어가라”(마7:13)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면 자신이 준비한 설교보다 더 다양하고 양질의 설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말은 옳은 면이 있다. 한 사람의 설교자를 통하여 작성된 설교보다 여러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설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폭넓고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다. 또 설교학을 모르는 설교자의 설교보다 설교학에 조예(造詣)가 깊은 설교자의 설교가 훨씬 더 양질의 설교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설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18) William H. Willimon and Richard Lischer, ed.,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학 사전』(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283면.

기독교설교는 설교의 내용을 결정하는 ‘진리’도 중시하지만, 그 진리를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설교자의 ‘인격’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룩스(Phillips Brooks)는 말한다. “설교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속에는 두 가지의 진수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리요, 다른 하나는 인격성입니다. 그 둘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하고 없애버리고는 설교일 수 없습니다.”<sup>19)</sup> 다시 말하여, 기독교설교에서는 도용된 설교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설자리가 너무나 좁은 것이다.

그렇다면 도용된 설교는 무엇이 문제인가? 도용된 설교는 그것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그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 1. 정직성에 위배됨

첫 번째 문제점은 도용된 설교는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정직성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설교자는 스토틀(John Stott)가 말 한대로 두 가지 면에서 진실해야 한다. 곧 강단에서 말씀하는 바가 진실로 그가 의도하는 말씀이어야 하고, 또한 그가 전하는 내용을 강단 바깥에서 몸소 실천해야 한다.<sup>20)</sup> 그런데 도용된 설교는 그가 진실로 의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의도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설교자들의 삶은 처음부터 설교되는 말씀의 내용과 괴리를 보인다. 설교자에게 요청되는 정직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도용을 정직성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용에 대하여

19) Phillips Brooks, *On Preaching*, 서문강 역, 『필립스 브룩스 설교론』(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16면.

20) John Stott, *op. cit.*, p.262.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도용의 부정적인 측면을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장한다. ‘도용은 죄다.’ 예를 들면, 로이드 존스(D. M. Lloyd-Jones)는 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자신의 예화나 일화를 몇 개 더 덧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스펠전의 설교를 주일이 되기 며칠 전에 읽고 나서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자기의 방법이라고 말하던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난 스펠전의 설교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통하여 지나쳐 간 것뿐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sup>21)</sup>

위에서 로이드 존스는 도용을 분명히 죄로 분류한다. 그에게 있어서 도용은 아무리 합리화하여도 죄의 일종인 것이다. 생스터 역시 로이드 존스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래서 그는 단호히 말한다. “도용은 죄다.”<sup>22)</sup>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용은 죄이거나 최소한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정직성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설교자의 설교 작성 능력을 퇴보시킴

도용의 두 번째 문제점은 설교자의 설교 작성 능력을 점점 퇴보시킨다는 점이다. 정장복 교수가 잘 말 한대로, “이런 행위가 습관화되는 날 찾아오는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들이다. 그것은 자신의 설교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그 회복이 너무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sup>23)</sup>이다. 인간

21) D. M. Lloyd-Jones, *Preaching & Preachers*, 서문강 역, 목사와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388-389면.

22) W. Edwin Sangster, *op. cit.*, p.193.

23) 정장복, 같은 책, 36면.

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력하지 않으면, 신체 모든 면에서 그 기능이 저하된다. 설교 작성 능력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의 설교를 스스로 작성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매년 남의 설교를 도용한 결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설교 능력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내지는 저하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면 몇 년 전 강의 시간의 일이다. 설교학에 대한 몇 시간의 강의 후에 한 목회자가 고백하였다. 자신이 20년 이상 목회하며 설교했던만 여전히 설교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설교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20년 동안 어떻게 설교해 왔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목회자는 20년 동안 설교했으나 거의 다른 사람의 설교에 의존하여 왔기에 여전히 설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여 설교하는 설교자의 모습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이 변함이 없고, 심한 경우 인간의 신체적인 노화현상의 결과나 앞에서 지적한 죄에 대한 자각의 결과로 과거보다 더 퇴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브룩스에 따르면 도용의 일종인 무분별한 모방은 자기 자신의 장점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장점은 상실하고 심지어 자신이 모방한 사람의 단점만을 취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sup>24)</sup>

결과적으로 도용은 설교자를 점점 더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보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 3. 도용된 설교는 이미 설교가 아님

설교자가 설교를 도용하는 경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도용된 설교는 기

24) Phillips Brooks, *op. cit.*, pp.158-160.

독교에서 말하는 설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설교 이해와 관련하여 여러 각도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먼저 설교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브로더스(John A. Broadus)가 잘 말한대로, “신약성경에서 설교는 기쁜 소식의 선포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sup>25)</sup> 그래서 설교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더불어 항상 그 메시지를 위하여 ‘선택된 인격 또는 설교자’<sup>26)</sup>가 있다. 설교학자들은 보통 이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결과에 따라 이들을 ‘대사’라고도 하고 ‘증인’이라고도 한다.<sup>27)</sup> 그리고 대사 또는 증인으로서의 설교자는 항상 설교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하게 된다. 그래서 모로우(Thomas M. Morrow)는 진정한 설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한 행위라고 까지 말한다.<sup>28)</sup>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하여 설교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로우가 말한 대로, “설교는 진리와 인격의 결합이다. 만일 둘 중 하나가 없다면, 설교는 없는 것이다.”<sup>29)</sup>

그런데 도용된 설교에는 이런 인격이 없다. 물론 설교를 도용한 설교자라는 인격이 있으나 이것은 기독교설교에서 말하는 인격이 아니다. 기독교설교에서 말하는 인격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남의 설교를 도용하는 거짓된 인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의 대사가 되고 증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25) John A. Broadus,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revised by Vernon L. Stanfiel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9), p.2.

26) *Ibid.*, P.3.

27) 물론 토마스 롱(Thomas G. Long)이 그의 책, *The Witness of Preaching*, 서병채 역, 「설교자는 증인이다」(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에서 잘 말하고 있는 대로 대사나 증인 외에도 ‘이야기하는 자’ 등 다른 개념들이 있다.

28) Thomas M. Morrow, *Worship and Preaching* (London: The Epworth Press, 1961), p.49.

29) *Ibid.*, p.50.

인격적인 만남 없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도용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기독교설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는 메시지의 관점이다.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것이다. 기독교설교의 메시지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다. 물론 메이휴(Richard L. Mayhue) 같은 강해설교자들은 “성경만이 메시지의 원천이 된다”<sup>30)</sup>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嚴密)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God the Holy Spirit)의 조명이 없다면 설교자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성경의 원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the triune God)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아더(John MacArthu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계시를 옳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명은 계시나 영감과 같지 않다. 그것은 새로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설교로 이끄는 성경의 명백한 이해는 이 성령의 조명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sup>31)</sup>

맥아더가 잘 말한대로 설교자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

30) John MacArthur, Jr. and the Master's Seminary Faculty, *Rediscovering Expository Preaching*, 김동환 역, 「강해설교의 재발견」(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38면.

31) 위의 책, 163면.

님이 서로 구별될지라도 본질적으로 “한 본질(ousia, essentia)” 또는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 하나”<sup>32)</sup>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말씀을 조명하지 않으면 설교자는 성경의 어떤 말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설교의 주된 메시지는 모두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데 도용된 설교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용된 설교를 작성한 설교자로부터 온다. 메시지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인 인간인 것이다. 물론 혹자는 도용된 설교가 원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설교를 도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도용한 설교를 작성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지 분별할 수 없고, 또 원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았는지라도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도용자와 도용자의 회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며, 그래서 결국 도용자의 설교내용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라기보다 도용된 설교집이나 설교 자료 자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기독교설교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도용자의 자의에 의하여 선택된 자료로부터 온 도용된 메시지는 기독교설교와는 구별되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은 회중의 입장이다. 회중의 입장에서 볼 때 도용된 설교는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독교설교는 통상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 그것은 설교를 듣는 회중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에는 항상 설교의 대상인 회중이 있다. 그런데 도용된 설교는 설교에서 대상으로 하는 회중과 실제 설교를 듣는 회중이 다르다. 처음 설교를 작성할 때 과녁으로 삼은 회중과 실제 설교를 듣는 회중이 완전히

32)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4), p.87.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과녁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조준된 설교가 도용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회중이라는 과녁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처럼 보인다. 결국 도용된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그 도용된 설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 IV. 도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그렇다면 이제 설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도용의 유혹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도용의 길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설교자가 도용의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도용이라는 패망의 길로 유혹하는 모든 도용 자료들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블랙우드(Andrew Watterson Blackwood)가 말한대로 자신의 것이 아닌 설교문, 심지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설교문을 설교할 때는 언제든지 숨김없이 그 또는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sup>33)</sup>이다.

그렇다면 이런 직접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이런 직접적인 방법 외에 도용의 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1. 설교자의 설교능력 증진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설교자의 설교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도용의 길을 걷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스스로 설교를 작성할 수 있다할지라도 설교학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33) Andrew Watterson Blackwood, *The Preparation of Sermons* (New York: Abingdon-Cokesbury Press, 1948), p.245.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는 설교자들이 쉽게 도용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유(類)의 사람들이 도용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설교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나와 있는 대로 과거 장로교회의 설교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sup>34)</sup> 설교를 위하여 필요한 능력들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히 대다수의 한국개신교회들은 설교중심예배를 지향하고 있기에 설교중심예배를 지향하는 교회의 설교자들답게 설교를 위하여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충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 2. 신학교의 설교교육 강화

바로 앞의 방법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신학교의 설교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의 ‘설교 작성 능력의 부재’ 항목에서 밝힌대로, 지금까지 한국의 대다수의 신학교들은 신학생들을 실천신학보다는 이론신학 위주로 교육하였다. 이런 이론신학 중심의 교육은 결과적으로 신학생들의 교회 현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떨어뜨렸으며, 바쁜 목회현장에서 본의(本意) 아니게 어느 정도 설교 도용자 양산에 일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의 설교 도용자 양산을 막기 위하여 설교학 교육

---

34)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따르면, 당대의 설교자들은 임직을 받기 전 자신을 설교자로서 철저히 준비하고, 또 검증받아야 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의 설교 능력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검증 받아야 했었는지 우리는 Thomas Leishman, ed., *The Westminster Directory*, 정장복 역,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2)의 ‘예배모범’ ‘부록 F: 교회정치’중 ‘목사 임직을 위한 예배모범’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헬라이어, 히브리어, 라틴어, 논리학, 철학, 그리고 신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요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중들, 목사들 그리고 노회 앞에서 설교함으로 그들의 설교능력을 검증받아야 했다.

을 강화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은 설교에 대한 이론 교육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실제적인 설교 작성 훈련도 포함시켜야 한다. 필자는 지난 수년 동안의 설교학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놀랍도록 발전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하나같이 설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들이었으나, 어느 정도의 설교학 교육 후에는 거의 대다수가 놀랍도록 발전된 설교를 내놓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러한 설교학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로이드 존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설교는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니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한다. 설교자는 낳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설교학 교육을 거부한다.<sup>35)</sup> 그러나 이것은 그의 설교학이나 설교학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다음의 말들이 설교학 교육의 필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논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설교자들의 설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또한 설교문들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1900년 이전에 출판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십시오. 스펀전, 휘펠드, 에드워즈 등 모든 위인들의 설교를 읽으라는 말입니다.”<sup>36)</sup> 즉 여기서 로이드 존스는 설교학적 용어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좋은 설교자들과 설교문들을 통한 배움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설교학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설교자들의 설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의 설교에 대한 이론과 실제 교육이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35) D. M. Lloyd-Jones, 같은 책, 155-156면.

36) 같은 책, 157면.

### 3. 설교자의 성실한 설교준비

세 번째로 설교자들이 설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설교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설교 교육을 잘 받고, 설교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준비해야 할 설교를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시간에 쫓겨서 도용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리온 존스는 말한다. “연구를 위한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라.”<sup>37)</sup> 옳은 말이다. 게으름 때문에 도용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때가 언제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자신이 가장 규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설교 준비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 “일단 모방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그 세력에서 벗어나는 오직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진지함을 더욱 깊게 가지는 것”<sup>38)</sup>이라는 ‘모방’에 대한 브룩스의 말과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설교 도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설교연구에 진지함을 가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별히 성실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도용의 위험에 빠지기 쉬운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다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호와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렘 48:10)

### 4. 설교자들의 재교육

마지막으로 설교 도용 방지와 관련하여 언급될 수 있는 한 가지는 설교자의 재교육인 것처럼 보인다. 특별히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

37) Ilion T. Jones, *op. cit.*, p.68.

38) Phillips Brooks, *op. cit.*, p.160.

늘의 사회와 환경 속에서 방황하는 회중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브로더스가 말한대로 설교자들의 지속적인 배움을 통한 지식의 확대<sup>39)</sup>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설교자들에게 이처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설교에 대하여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학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요청하는 것을 보았다. 또 정장복 교수가 개설한 ‘사이버 설교대학원’(www.wpa.or.kr)을 비롯하여 설교에 대한 강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신학교 시절에는 설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으나, 오늘날 급변하는 교회현장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설교에 부딪치며 설교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처럼 보인다. 설교자가 끊임없이 배우지 않고서는 변화하는 회중들에게 적합한 설교를 준비할 수 없고, 이것은 결국 설교자를 도용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설교자들이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움의 길로 나아가간다면 아무리 거센 도용의 유혹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학자들은 설교자의 재교육과 중단 없는 배움의 길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모로우가 잘 지적한대로 우리가 읽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양육하고 또 기억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고,<sup>40)</sup>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설교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39) John A. Broadus, *op. cit.*, p.15.

40) Thomas M. Morrow, *op. cit.*, p.39.

##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도용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교회 설교자들 중 상당수는 도용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이 도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게으름이나 설교 작성 능력 부재 등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과도한 설교 횟수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람 등 사회적인 이유도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도용은 결국 설교자와 회중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이제 도용의 길을 걷던 설교자들은 과감히 그 길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도용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설교 능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아직도 신학교에 있다면 설교를 위하여 필요한 공부들에 진념하고, 이미 교회 현장으로 나왔다면 설교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신의 설교 준비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고, 성장을 멈추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바른 성장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자신의 설교인 것처럼 태연하게 말하는 설교자들은 매킨타이어(R. E. McIntyre)의 다음의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만은 치명적인 죄이다. 그것이 단순한 작은 과오일 수는 없다.”<sup>41)</sup>

---

41) R. E. McIntyre, *The Ministry of the Word*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50), p.114.

## 참고문헌

- 이진우. 「청소년설교 이렇게 하십시오」.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9.
-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1.
- 최정성.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성경인물설교」. 서울: 백합출판사, 1991.
- Baumann, J. Daniel.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정장복 역. 「현대 설교학 입문」.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 Brooks, Phillips. *On Preaching*. 서문강 역. 「필립스 브룩스 설교론」.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Jones, Ilion T.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aching*. 정장복 역.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Leishman, Thomas. ed., *The Westminster Directory*. 정장복 역.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2.
- Lloyd-Jones, D. M. *Preaching & Preachers*. 서문강 역. 「목사와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서병채 역. 「설교자는 증인이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MacArthur, John. Jr. and the Master's Seminary Faculty. *Rediscovering Expository Preaching*. 김동완 역. 「강해설교의 재발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Parker, T. H. L. *Calvin's Preaching*. 김남준 역. 칼빈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3.
- Willimon, William H. and Lischer, Richard. ed. *Concise Encyclopedia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학 사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4.
- Blackwood, Andrew Watterson. *The Preparation of Sermons*. New York: Abingdon-Cokesbury Press, 1948.
- Broadus, John A.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revised by Vernon L. Stanfiel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9.

McIntyre, R. E. *The Ministry of the Word*. 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50.

Morrow, Thomas M. *Worship and Preaching*. London: The Epworth Press, 1961.

Sangster, w. Edwin. *The Craft of Sermon Construction*. London: The Epworth Press, 1949.

Stott, John. *I Believe in Preaching*. London: Hodder & Stoughton, 1982.

논문투고일: 2007.10.22

심사개시일: 2007.11.06

심사완료일: 2007.11.10